

경향신문

수도권·영남 ☀ 호남 ☀ 21~32°C

20판 1946년 10월 6일 창간 제19606호

kyunghyang.com

2008년 7월 25일 금요일

▶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탐욕의 도시, 길 잃은 나를 만나다

알 만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려고 혈안이 다. 주식을 편법으로 사고팔기도 한다. 가장 높은 건물을 지어 햇볕과 빗방울조차 독차지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자본주의적 탐욕의 발원지, 그나라의 본래 주인은 자연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도 밝고 아름답게 살아간 체로키족과 같은 인디언들이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포리스트 카터·아름드리미디어)은 인디언 소년의 순수한 눈으로 들여다본 인디언의 세상사는 이

이야기이다. 부모를 잃은 체로키 소년 '작은 나무'가 위선적인 백인들에게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할아버지와 개척촌 도서관 애용자인 할머니로부터 새들의 소리와 몸짓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우며 자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작은 나무'는 백인사회의 탐욕적인 풍경을 견디지 못하고 인디언 연방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가 되고 만다. 저자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 내용은 나의 첫 일기장에 고스란히 포개진다.

40여년 전 나는 집 밖의 큰 바위에 인사하고 오는 것

을 학교공부라 생각했고, 눈이 흘날리는 장터에서 끝까지 나를 쳐다본 인연으로 가족이 된 강아지 '우리'와 아침마다 내게 놀러온 때까지 ' 짹짹이'를 친구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 내가 며칠 전, 고비사막 같은 서울 한복판을 걷다가 신기루를 쫓거나 한 듯 길을 잃고 말았다. '작은 나무'가 마지막 친구인 블루보이를 고이 묻고 홀로 떠난 그 길의 끝에 과연 인디언 연방이 있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 때문이었다. 잠시 팍팍한 발길을 멈추고 땅을 내려다본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멀리 와 버린 걸까?'

한필원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책 읽는
경향
충남 대전



하나금융그룹